



2022

임팩트 리포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임팩트 리포트

‘한 명의 아이’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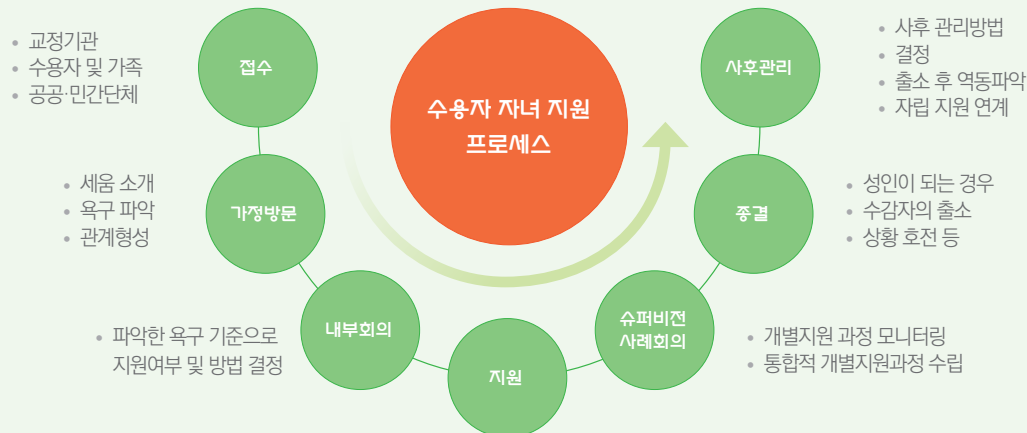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미션으로 2015년,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설립되었습니다. 세움은 아동중심의 관점으로 수용자 자녀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같은 행정개선과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수용자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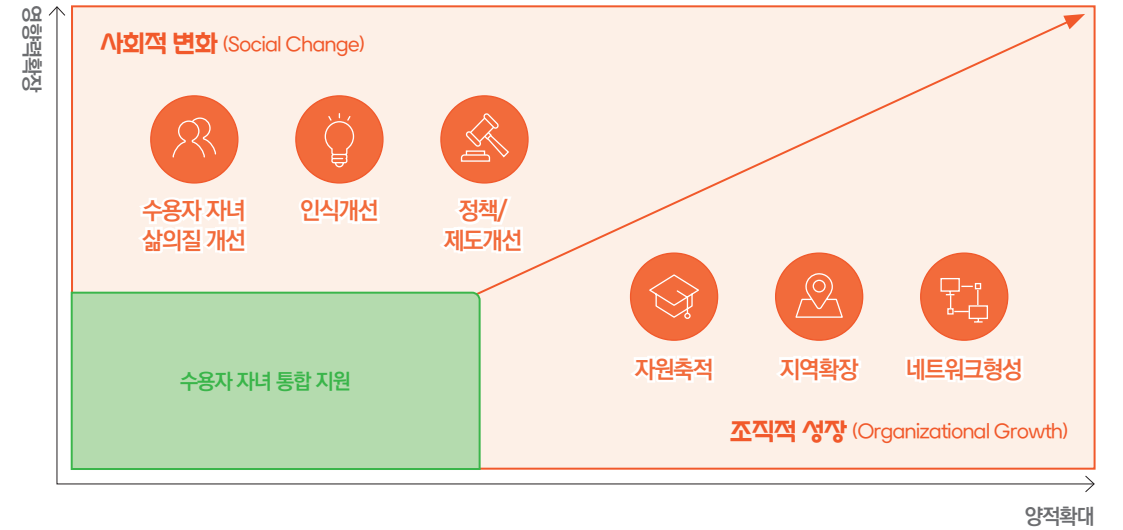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7)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는 연간 5만4000여명으로, 이는 국내 전체 19세 미만 인구의 0.5%에 해당합니다. 연령으로 보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이 59%를 차지하는데,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는 등 기본적인 돌봄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돌봄의 방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시달립니다.

* 수용자란,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함

수용자 자녀 지원 프로세스



임팩트 프레임워크 (Impact Framework)



임팩트 지표(Impact Index)

변화지점	관련 이해관계자	지표항목
사람	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삶의 질 개선
	수용자 가족	수용자 가족 삶의 질 개선
시민	일반시민	수용자 자녀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의 증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
정부/정책	정부 및 행정기관	입법/사법/행정 영역에서 법, 제도, 정책을 수립 또는 개선하는 것에 기여
인적/지적자본	후원자, 자원봉사자	수용자 자녀 지원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구성원 증가
	연구자, 연구 교류기관	수용자 자녀 지원과 관련 지식과 경험, 노하우의 축적/공유/확산
사회경제자본	네트워크 기관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지원 생태계 조성
	후원자, 기업	수용자 자녀 지원에 필요한 자금, 공간 등 경제적인 자산의 확보

세움 지원체계



사회적 변화
Social Change

세움의 주요 활동

- 수용자 자녀/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장지원비, 긴급생계비 등 지원
- 상담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개별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개별지원

-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를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 서명운동, 언론홍보, 콘텐츠 제작

- 적극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법률제정 및 행정제도 개선 노력

- 자원봉사 그룹 모집, 교육
- 후원자와 소통

- 수용자 자녀 사례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
- 연구논문 발표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참여

-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기관, 단체 등)와 협력하며 세움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함

- 기업과의 협력, 후원자 확대노력을 통해 후원금을 늘림

세움을 통한 변화

-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및 삶의 질 개선

- 수용자 자녀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의 증가
-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

- 입법/사법/행정 영역에서 법, 제도, 정책이 수립되거나 개선됨

- 수용자 자녀 지원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구성원 증가

- 수용자 자녀 지원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노하우의 축적/공유/확산

-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지원 생태계 조성

- 수용자 자녀 지원에 필요한 자금, 공간 등 경제적인 자산의 확보



조직적 성장
Organizational Growth

STAND FIRM



주요 임팩트 지표 (Key Impact Index)

* 본 임팩트 리포트의 수치는 2015년~2022년의 수치를 합산한 결과임
* 화폐가치 환산에 대한 측정식과 프록시는 세움 5주년 사회적가치측정 활용값을 유지함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 8,931명 아동 직접 지원
- 366명의 청소년 활동 지원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 지원

- 1,170 가정 지원
- 745회 면회 지원

수용자 자녀에 대한사회인식개선

13.2% 64.4%

일반시민 세움 뉴스레터 구독자

<생활고를 겪는 수용자 자녀들을 위해 세금납부 의사가 있다>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정부기관,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지향

연구/조사활동을 통한 정책개선 토대 마련

- 국내 최초 수용자자녀 현황 국가통계구축(2017, 국가인권위원회 위탁)
-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입소 시 자녀현황 조사 의무화 초석 마련
- 관련 논문/보고서 17+건
- 피인용 수 32+건

지역 확장을 통한 전국 수용자 자녀 지원 확대

- 2022년 경상권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세움의 문제 해결 모델 복제, 확산 시작
- 2025년까지 4개 권역(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설치 예정

세움 활동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화폐가치 환산)

₩7,785,065,382

- 청소년 비행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1,732,286,237 원 + 수용자 재범방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6,052,779,145 원

Part 1.
사회적 변화
(Social Change)

1) 수용자 자녀/가족 삶의 질 개선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남겨진 자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동시에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지원, 물품지원, 성장지원비 지급 등의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교도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하기에 세움은 면회비 지원을 통해 수용자 가족 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움 5주년 사회적가치측정에 따르면 국내 수용자의 재복역률은 약 25.4%지만 가족이 세움의 지원을 받은 수용자의 출소 3년 이내 재복역률은 5.7%로 확인되며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음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수용자 자녀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성과도 있습니다.

세움의 활동	정량적 성과	
수용자 자녀 지원	• 지원 아동 수	• 8,931명
면회 지원	• 지원 횟수	• 745회
상담 지원 및 연계	• 심리상담 지원	• 2,265회
금전/물품 지원	• 성장지원비 지원	• 4,484회
청소년 활동 지원	• 참여아동 수	• 366명
가족 지원	• 지원 횟수	• 1,170회
긴급 지원	• 지원 횟수	• 1,424회
양육자 교육	• 교육 수혜 가정	• 28가정
	• 교육 횟수	• 206회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부모가 범죄 자라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교우관계 등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 상태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부정적 효과가 여러 방면으로 확대 재 생산될 것입니다.

이영규 인권보호관_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

2) 인식개선

수용자 자녀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범죄자와 가족을 동일시하는 사회의 낙인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움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와 인식개선의 사회적공감대를 늘리는 다양한 행사를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인식·정책개선을 위한 서명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움의 활동을 접한 시민이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에 비해 긍정적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인식개선 캠페인 및 서명인원



- 2016 **주제** 포스터 공모전 “우리의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소 서울 시민청
서명 240명
- 2017 **주제** 캘리그래피 공모전 “상처를 입히시겠습니까?”
장소 서울 시민청
서명 1,500명
- 2018 **주제** 수감자 자녀의 아동친화적 면접권 보장 서명캠페인 “만나고 싶어요”
장소 온라인캠페인
서명 398명
- 2019 **주제** 캠페인 서포터즈 활동 “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
장소 서포터즈 3개팀 15명 활동
서명 240명
- 2020 **주제** 캠페인 서포터즈 활동 “아이들이 원할 때, 만날 수 있도록”
장소 서포터즈 2개팀 17명 활동
서명 300명
- 2021 **주제** 꼭 안아주세요!! 당신의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도소 내 양육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장소 서포터즈 3개팀
서명 295명
- 2022 **주제** 누구에게도 말 못한 내 비밀, 들어주실래요? (수용자 자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제도화 촉구 서명운동)
장소 온/오프라인
서명 85명

세움의 활동을 접했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수준을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과 비교하기 위해 세움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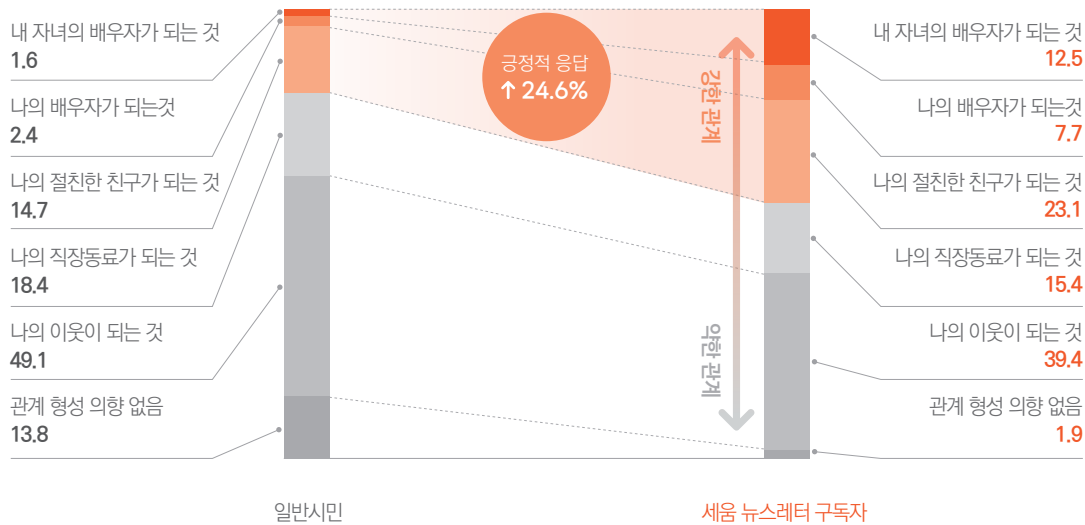
- **조사대상** 세움 뉴스레터 구독자 104명
- **조사기간** 2022/11/7 ~ 2022/11/11
-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항목** 수용자 자녀와의 관계 수용도, 수용자 자녀 복지 관련 세금납부 등 2022년 아동복지연구소의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문항과 동일문항을 사용하여 진행

우선 수용자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있어, 일반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13.8%에 달하는 반면 세움의 활동 및 경험을 접한적이 있는 시민의 1.9%만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택해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관계의 강도에 있어서도 이웃을 넘어 절친한 친구(23.1%), 배우자(7.7%), 내 자녀의 배우자(12.5%)가 되는 데까지 강한 관계가 되어도 좋다는 인식이 나타났습니다.

'전과자'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자녀와의 관계 수용 정도 단위: %

6개의 보기 중 자녀와의 관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최대치를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세움의 활동을 접한 시민들이 수용자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더 우호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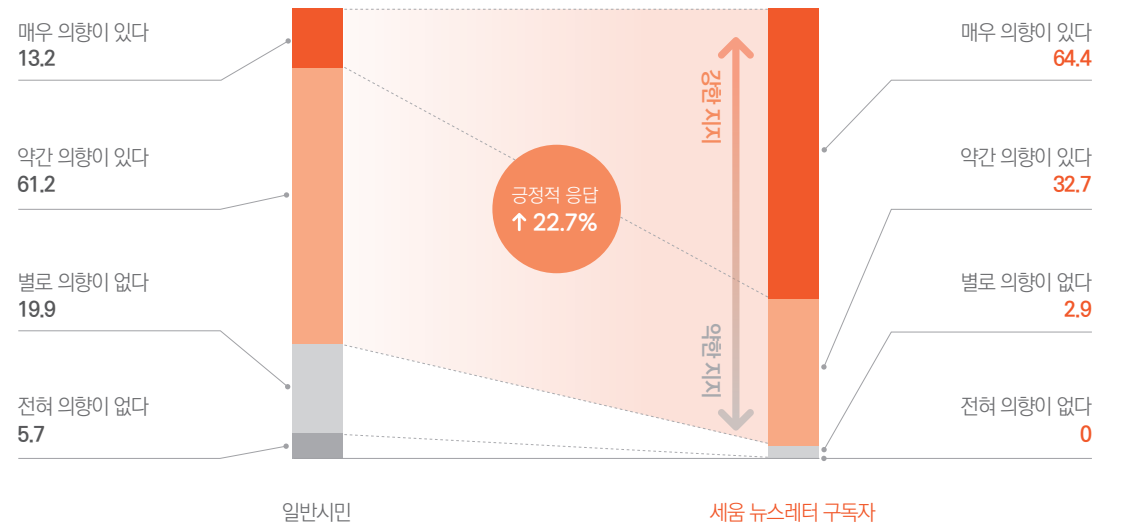


다른 질문으로 생활고를 겪는 수용자 자녀의 복지를 위한 세금납부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세움 뉴스레터 구독자 97.1%가 세금납부 의향이 있다('약간' 32.7%, '매우' 64.4%)고 답하면서 수용자 자녀 복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압도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데 반하여, 일반시민은 적극적인 납부의사를 밝힌 응답은 1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세움의 활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수용자 자녀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여부 단위: %

4개의 보기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 납부 의향 정도를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세움의 활동을 접한 시민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사가 높음



3) 정책/제도개선 성과



세움의 정책관련 활동

2015

세움, 아동복지와 아동인권 관점에서
수용자 아동과 가족지원 시작함

2017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최초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를 진행함

2018

세움의 수용자 자녀 면접권과 보호의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자녀 지원 대책 질의함



정책관련 변화 성과

2017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를 근거로
법무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2018

법무부 장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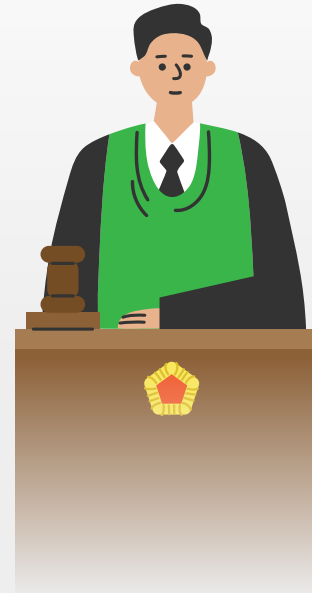
2019

수용자 자녀 면접권,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이 개정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신설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률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세움이 조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법원장, 검찰청장, 법무부장관에게 권고를 내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수용자 자녀 인권에 대한 권고를 내림



2020

법무부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TF] 발족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사항을 내림

2021

세움,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업무협약(MOU)
체결, 부모의 구속초기 수용자 자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함

2021

서울지방교정청 내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이 신설됨



2022

전국 4개 지방교정청 내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팀이 운영됨

세움의 정책관련 활동



정책관련 변화 성과

Part 2.
조직적 성장
(Organizational Growth)

1) 자원 축적

세움은 인적/지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사람과 조직을 확장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며, 지식 아카이브 등을 형성합니다. 세움은 내부에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만나고 지원한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지원합니다. 2022년은 세움의 인적자본이 한층 확장되는 해였습니다.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움은 숭실대학교 사회문제 해결 소셜임팩트 스쿨 교양 교과과정(3학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전문학습 과정이 대학교 내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적자본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년도	논문/연구보고서명
2016	이 땅에서 수용자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비스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수용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비난과 생존 사이에서
2017	수용자자녀의 양육실태 및 성장환경과 개선방안 미성년자녀 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8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및 지원방안 부모 수감 후 남겨진 자녀의 삶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2019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의 부모 수감 후 삶의 경험 및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부모 수감 후 홀로 생활하는 자녀 사례연구
2020~202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한 수용자 자녀의 삶에 대한 연구 여성 수용자 자녀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한 심리정서 통합지원 프로그램 평가 Family Wellness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 가족의 가족기능 변화 보고서
2022	수용자 자녀의 접견 경험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수용자 자녀의 부모수감 이후 삶의 변화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적 연구 위기 수용자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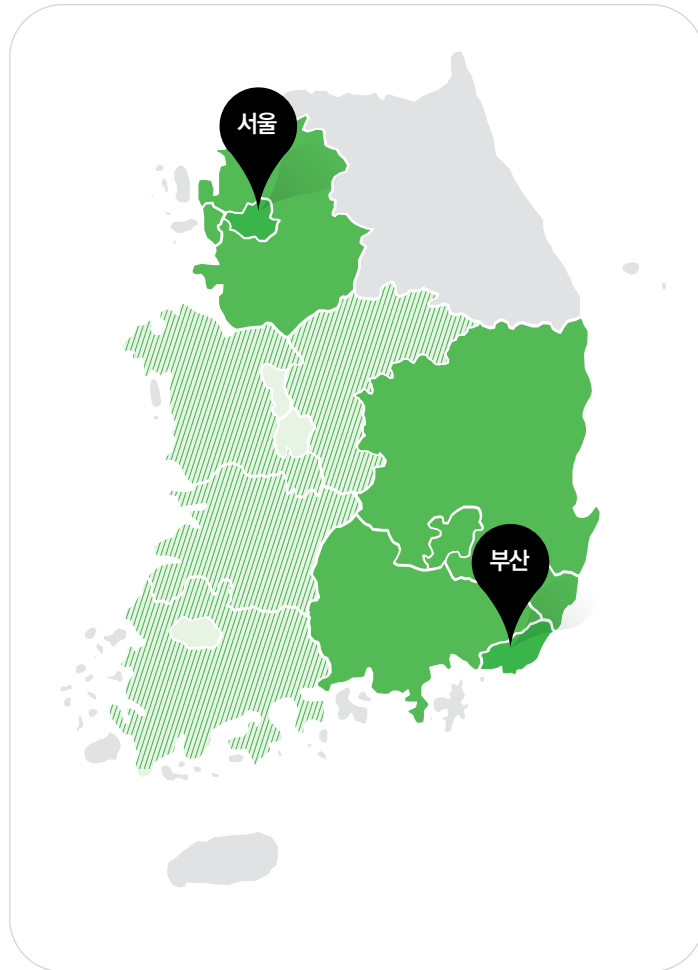
관련 도서 발간

1.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2018년, 이경림 역)
2. 수용자 자녀 양육지침서 '내일을 위한 용기' (2018년)
3. 나답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법 - 수용자 자녀 당사자 글(2020년)
4. 꼭 안아주세요 - 이경림 대표(2021년)
5. 어둠속에서 살아남다 - 7명의 수용자자녀 이야기(2022년)

연도	참여 세미나&컨퍼런스명	목적
2015	한국, 일본 수용자 자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와 정책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수용자 자녀, 가족실태 및 지원현황을 통한 한국사회 적용점 검토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한일 네트워크 구축
2016	아동 인권 관점에서 본 수감자 자녀 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 일본의 수감자 지원 경험과 실태를 인권관점(복지적, 형사사법적, 법률적,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수감자 자녀 지원의 필요성 제기 한국, 미국,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며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적 관심 제고
2017	INCCIP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19개국 150여 명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단체와 학자, 교정행정가, 실천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례와 연구결과를 공유 세움 발표 주제: 한국의 수용자 자녀 현황 및 세움 활동 소개
	WOH 초청, 일본 사법복지학회(WOH: World Open Heart) 참가 및 사례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감자 자녀 지원에 대한 한일 간의 다양한 실천사례와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일본의 수감자 지원기관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 아시아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구체화하고자 함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통한 수용자 자녀 인권보장 방안 제안 해당부처(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방안 모색
2018	한일 수감자자녀 양육지원 사례경험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 일본의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양국 실무자들(교도관,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성을 증진
2019	제2차 INCCIP 국제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여성수감자 수용시설인 Askham Grange Women's Prison 방문을 통해 영국 여성 수용자 현황 및 지원에 관한 경험 공유 세움, 한국의 수용자 자녀현황과 지원시스템 개선사례 등 세움 활동 및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함
2021	제3차 INCCIP 국제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자 자녀의 권리옹호를 위한 국제연대 컨퍼런스. 코로나19로 웨비나로 진행 한국발표 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용자 자녀 지원의 사회적 가치측정 ② 법률지원 사례를 통해 살펴본 수용자 자녀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③ 수용자 자녀 보호법 입법 경과
	수용자 자녀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적 가족 상담 프로그램 보고회 [회복으로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적 상담프로그램 보고회 발표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세움상담 사례발표 ② 양육자교육 사례발표 ③ 가족회복프로그램 참여 당사자 발표
2022	위기 수용자 자녀 권리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수용자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연구발표

2) 지역 확장

세움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수용자자녀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 안에서 개별적 집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의 구축을 본격화했습니다. 2022년 부산지역에 경상권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경상권 내 신규 수용자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등 지원아동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상담, 멘토링 등의 밀착지원을 통한 질적확대 성과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세움은 수도권 중심이던 지역적 한계를 넘어 4개 권역(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위기 수용자자녀와 그 가족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며 세움의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개소(서울, 부산) ▨ 개소 예정(충청, 전라)

서울에서 만나는 횃수와 경상권 통합센터가 생기면서 아이들을 만난 횃수가 다르고, 특히 대화의 양과 깊이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아이들과 직접적인 연락을 많이 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아이들의 니즈를 알게 됐어요. 앞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리소스를 가지고 지역의 수용자 자녀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린_세움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간사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업을 다지는 세미나를 진행함

